

# 광주 제조업체 45% “日 수출 규제에 어려움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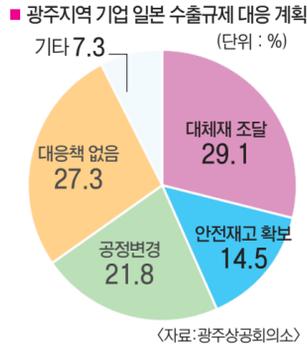
### 광주상의 조사... 기계·철강·금속가공·금형 순 “외교 출구 전략·첨단 부품 소재 국산화 필요”

#1 회사 매출 70~80%가 일본기업과 미국 소재 일본기업인데, 발주를 미루는 등 이상 기운이 감지되고 있다. 부품·장비는 대체할 수 있지만 바이어의 오더가 끊어지는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크다. <광주 금형 제조기업 A사>

#2 국내 공작기계 업체에 100% 납품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 들어오는 공작기계 핵심부품인 수치제어반 수급이 어려워지면 회사는 직격탄을 맞게 된다. <전남 오일펌프 제조업체 B사>

#3 일본 광학렌즈를 성형 가공해 정밀 금형업체에 납품하는데, 국내에서 대체 조달하기 힘든 부품이다. 전략물자에 해당돼 안전 재고 확보 또는 우회 수입경로를 타진하고 있으며, 자체 개발 검토 등 다각도로 방법을 찾고 있다. <광주 광학기기 제조업체 C사>

움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14일 광주상공회의소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 지역 제조·무역업체 122곳을 대상으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영향과 대응 계획에 대한 의견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45.1%가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매우 부정 4.1%, 부정 41.0%)이라고 답했다. 54.1%는 “별다른 영향 없을 것”이라고 했고, 0.8%는 자사 제품으로 일본산 대체가 가능해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일본 부품·소재·장비를 사용하는 기업(75개사) 중에서는 57.3%가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매우 부정 4.0%, 부정 53.3%)이라고 내다봤다. 업종별로는 기계(64.3%)와 철강·금속가공(63.6%), 금형(54.5%) 순으로 부정적 의견이 높았다. 기계 업종은 공작기계의 두뇌 역할을 하는 수치제어반과 자동화 설비용 PLC 등 핵심 부품의 일본 의존도가 높은 데다, 일본 전략물자 리스트에 있는 품목들이 많고, 철강·금속과 금형은 내



수 투자 위축과 일본 수출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는 이유는 “자사 제품의 일본 수출 부정적 영향”(32.7%), “원정기업의 발주 또는 투자 위축 우려”(29.1%), “재고 확보 및 대체 부품·소재 조달 비용 부담과 공정 적응 애로”(21.8%), “일본이 독점하는 부품·소재·장비의 대체 조달이 쉽지 않기 때문”(14.5%) 등을 꼽았다. 부정적 영향을 언급한 업체들은 대응 계획으로 ‘대체재 조달’(29.1%), ‘공정 변경’(21.8%) 등을 제시한데 반해 27.3%는 “대응책이 없다”고 답했다.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기업들은 ‘일본산 부품 소재와 장비 사용이 거의 없기 때문’(71.2%), ‘국산화 수준이 높아 대체할 수 있기 때문’(16.7%) 등을 들었다. 정부 지원 대책으로 ‘부품·소재·장비 수급 안정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38.5%),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비 지원’(31.7%), ‘규제 특례조치 확대’(13.2%), ‘피해기업 긴급 경영안정 자금 지원’(10.7%), ‘피해기업 납세 유예 지원’(5.9%) 등을 들었다.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외교적 대응을 통한 출구 마련’(35.2%), ‘첨단 부품·소재 국산화’(30.3%)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지역기업의 일본 수출에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며 “수출 규제가 장기화하지 않도록 정부는 외교적 해법을 적극적으로 찾고, 지자체와 유관기관, 연구기관 등은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1938.37 (+12.54)	금리(국고채 3년) 1.15 (0.00)
↑ 코스닥 597.15 (+6.40)	↓ 환율(USD) 1212.70 (-9.50)



### 이정희 한전 감사위원, 호주 CEO와 전력산업 면담

이정희(왼쪽 두번째) 한전 상임감사위원은 최근 'NSW(New South Wales)주(州) 존 바릴라로(John Barilaro·왼쪽 세번째) 부수상 및 인데버 에너지(Endeavour Energy, 호주 전력회사)의 르언 피커링(Leanne Pickering) CEO 등을 만나 한전의 해외사업 및 전력산업에 대한 내용을 교환했다. 이정희 한전 상임감사위원은 이날 한국전력이 추진하는 바이통광산 사업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사업임을 강조하며, 추후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주정부에게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 인데버 에너지(Endeavour Energy) CEO와의 간담회에서는 호주 에너지 산업 개황과 호주전력회사의 판매 및 배전 분할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 현대차그룹, 광주 초등생 대상 ‘자동차 과학캠프·과학교실’



현대차그룹은 지난 12~14일 인재개발센터 파주캠퍼스에서 광주지역 초등학생 140명을 대상으로 ‘자동차 과학캠프’를 진행했다. <현대차 제공>

현대자동차그룹은 지난 12~14일 사흘간 인재개발센터 파주캠퍼스에서 광주지역 초등학생 140명을 대상으로 ‘자동차 과학캠프’를 열었다.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과 함께 진행한 이번 캠프는 학생들의 과학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자동차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자동차 과학캠프’에서는 드론·자율주행

전기차 레이싱, 로봇·로켓 만들기 등 미래 과학기술과 관련된 미션을 통한 체험교육이 이뤄졌다. 학생들은 또 현대모터스튜디오 고양을 방문, 자동차 개발 과정을 이해하고 브랜드를 체험했다. 현대차그룹은 이달부터 경기·울산지역 초등학생 1500명을 대상으로 방과 후 특별활동인 ‘자동차 과학교실’도 운영한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2017년부터 4500여

명의 초등학생들에게 ‘찾아가는 자동차 과학교실·과학캠프’를 운영했다. 또 중학교 자유학기제에 특화된 진로교육 프로그램인 ‘현대자동차 미래자동차 학교’(전국 300개 중학교 1만2000여명), 자동차연구소 연구원의 ‘직원 강연 기부’(화성시 관내 초·중·고 158개 학급 4700명)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계적 과학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박정욱 기자 jwpark@

### 미국발 훈풍에 코스피 12포인트 반등 코스닥은 1%대 상승

코스피가 14일 미국발 훈풍에 힘입어 반등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2.54포인트(0.65%) 오른 1938.37로 장을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20.35포인트(1.06%) 오른 1946.18로 시작해 강세 흐름을 이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개인이 519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01억원과 243억원을 순매도했다. 이 가운데 외국인은 지난달 31일부터 11거래일 연속 순매도 행진을 벌여 총 1조 8056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이는 2016년 1월7~26일의 14거래일 연속 순매도 이후 최장이다. 연속 순매도액은 2018년 10월18~30일(9거래일 연속)의 2조1128억원 이후 최대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40포인트(1.08%) 오른 597.15로 마감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각각 630억원, 63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663억원을 순매도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9.5원 내린 1212.7원에 마감했다. /연합뉴스



### 지역아동센터 사랑나눔 실천 ‘여름방학 명랑캠프’

한전 광주전남본부 사회봉사단 해 이번 활동을 추진했다. 이번 명랑캠프는 광주 남구 물놀이 축제, 소쇄원 관람, 보성 울포 해수욕장 방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에게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경험을 선사했다. 임철원 한전 광주전남본부장은 “우리본부가 지역사회의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정을 전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민의 사랑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FACE 메이크업만 하는 시대는 끝!  
이제는 BODY 메이크 UP!

☆☆  
흐트러져 있는 살들을 제자리로 정돈 시켜 완벽한 몸매로!

가능성 보정 속옷 12년 장수기업  
기능성 속옷의 명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 부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소  
편안한 착용감 탄성GOOD! 흡발습GOOD!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단연속가형사용

실크프로테인아미노산가공 원적외선가공

대리점·총판문의 1588-2219

본사 광주광역시 북구 경일로 235 V&G빌딩 서울사옥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28길 5 축복빌딩(도곡동 518-9)